



8·15 태극기 꼭 답시다 제66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광주 남구 진월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이 베란다에 태극기를 내걸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생존 독립유공자 11명뿐

잊혀져가는 老 영웅들

정부 무관심·무책임
대부분 쓸쓸한 노후

일본 유학시절인 1943년 항일운동을 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른 애국지사 최창모(88)옹은 광복 66주년을 병원에서 맞았다. 올 초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 등을 크게 다친 뒤 혈중까지 검치면서 현재 광주시 동구 학동 한 병원 중환자실에 가쁜 숨을 쉬고 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한국인 차별에 항의하다 일본 경찰에 잡혀 감옥에 갇히던 최(85)옹 역시 보훈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일본 경찰에게 당한 고문으로 성치 않은 다리 관절 등에 문제가 생겨 거동을 하지 못할 정도다. 지난해까지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해 만세삼창을 이끌었던 광복군 출신 이준수(88)옹도 이제는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할 만큼 건강상태가 나쁜 것으로 알려졌다.

10대 후반의 나이에 조국 광복을 위해 일제의 총칼에 항거한 독립유공자 1세대들이 병마와 힘겨운 사투를 벌이며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1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1세대는 광주에 7명, 전남에 4명 등 광주·전남지역에 11명이 생존해 있다. 이들 가운데 7명은 80대 후반의 고령에 이른데다 뒤늦은 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병마 등으로 힘겹게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독립유공자 유족들은 정부와 관계 기관이 기념일에만 반쪽 관심을



광주시 동구 학동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애국지사 최창모(88)옹을 14일 외손자 박정우(35)씨가 돌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보일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옹의 외손자 박정우(35)씨는 "할아버지가 유공자로 선정된 뒤에도 정부의 무관심과 무책임함에 분노해 정부로부터 받은 훈장을 꺼내쳐버리기도 했을 정도로 서운함을 느꼈다"며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당사자나 후손들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친일파의 후손들은 오히려 잘사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공자들은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광복군에 가담하고, 비밀결사로 신사참배 거부운동 등을 이끌었던 당시를 기억하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 찾기 등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광주사법학교 재학 시절 18살의 나이로 독립운동 비밀결사조직을 이끌

었던 노동훈(84)옹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정부 수립 후 제대로 친일파를 처단하고 일본과 관계를 정립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국가의 화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원병으로 끌려갔다가 탈출해 중국 충칭에 사령부를 둔 광복군에 입대 한 김배길(85)옹은 독립된 지 66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탄식했다. 김옹은 "일본의 본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대처해 나갔어야 했는데 동해마저 이제 일본해로 불리게 되는 등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같다"며 "친일파 후손들도 민족의 피로 모은 재산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자숙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희호기자 kimho@kwangju.co.kr

성명(나이)	상훈	공적	현재 건강상태
김배길(85)	건국훈장 애족장	중국에서 광복군 활동	-
이기현(87)	건국훈장 애족장	신사참배 거부 등 항일활동	거동 불편(병원 입원 치료)
노동훈(84)	대통령표창	독립운동 비밀결사 조직	-
이준수(88)	건국훈장 애족장	중국에서 광복군 활동	거동 불편
문병갑(82)	건국훈장 애족장	항일활동	-
박헌재(87)	대통령표창	독립운동 비밀결사 조직	거동 불편
최창모(88)	건국포장	일본에서 독립운동	거동 불편(병원 입원 치료)
신임휴(84)	대통령표창	독립운동 비밀결사 조직	-
이기현(86)	건국훈장 애족장	신사참배 거부 등 항일운동	거동 불편
김영남(84)	건국훈장 애족장	일본군 병영 방화 등	거동 불편
황의영(92)	건국포장	독립운동	거동 불편

광주시 "독립유공자 후손 찾습니다"

광주·전남 43명 훈장 등 못 전해줘

광주시가 올 제66주년 광복절을 계기로 독립운동에 참여한 공적으로 포상을 받은 유공자 중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훈장 등을 전수하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찾기 운동을 전개한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 훈장 미전수자는 43명(전국 3771명)으로 파악됐다. 명단은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나 광주 전담광복회, 국가보훈처 등의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후손의 범위는 직계비속 및 방계가족이며, 제적등본 및 족보 등 독립유공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광주전남 지방보훈청에 접수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훈장을 전수받을 유족 여부를 심사해 훈장 등을 전수하게 된다.

한편,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애국지사는 11명, 유족은 360명 등 독립유공자는 모두 370명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약값 내년부터 평균 17% 내린다

약가제도 개편...국민부담 2조1천억 줄어

정부가 약값에 긴 거품을 걷어내고 국민의 약품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약품업 이후 최대 규모의 약가 인하를 단행한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약값의 대폭 인하와 제약산업의 체질 개선 및 글로벌 역량 강화 방안을 뼈대라 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진 장관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한다"면서 "정비가 끝나면 국민 약값 부담이 연간 약 2조1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약가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계단식 약가제도 폐지 ▲동일 성분 의약품에 대

한 동일 보험 상한가 부여 ▲상한가 인하 및 기동제 약가 조정 등이다.

복지부의 계획대로 약가 인가가 진행되면 건강보험에 등재된 1만4410개 의약품 가운데 8776개 품목의 가치가 평균 17% 내리가는 효과가 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기업들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전남·북지역

태풍·폭우 피해 3000억원 육박

지난 8~9일 태풍 '미아파'와 집중호우로 인한 전남·북지역 피해액이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태풍 피해 현황을 잠정 집계한 결과, 3명이 숨지고 248가구 54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재산피해액은 공공시설 769억4200만원, 사유시설 136억9700만원 등 모두 906억3900만원

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신안이 가거도 방파제 파손 등으로 248억원의 피해를 입었고 ▲광양 187억5300만원 ▲진도 108억2400만원 ▲구례 58억6800만원 ▲곡성 40억3000만원 ▲해남 44억7600만원 ▲완도 41억2200만원 ▲영광 29억6300만원 순으로 피해가 컸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액에는 주택이나 농산물 침수, 가축·수산 생물 피해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어서 전체 피해규모는 100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서유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3일 진도와 완도, 나주지역 태풍 피해 현장을 둘러본 뒤 농어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쓰고, 5000만원의 피해복구 보조금 한도를 1억원으로 늘릴 수 있도록 관

해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어서 전체 피해규모는 100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서유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3일 진도와 완도, 나주지역 태풍 피해 현장을 둘러본 뒤 농어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쓰고, 5000만원의 피해복구 보조금 한도를 1억원으로 늘릴 수 있도록 관

계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이날 오전 11시 현재 도로와 교량 등 공공시설 피해액이 787억원, 주택과 축사 등 사유시설 피해액 27억원, 기업체 공장 피해액 220억원, 농작물과 수산, 축산물의 피해액 940억원 등 14개 시·군에서 197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화병 이젠 한방(韓方)으로 다스린다

자연과 몸을 하나로 만드는 경희한의원

미국 정신과 협회는 96년 화병을 한국인에게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으로 일종의 문화충격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체면, 도리, 의무감을 중시하고 참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진 결과로 할 수 있습니다.

화병의 원인은 계속되는 스트레스, 억울한 감정, 억압적 환경, 자신의 이상과 맞지 않는 현실, 충격, 자식이나 배우자와의 사별, 타인으로부터 서운한 감정, 사업의 실패, 억눌린 감정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제때에 신체에서 소화해내지 못하면 심장병, 중풍, 고혈압, 두통, 당뇨병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아 화병은 무서운 질병 중의 하나입니다.

화병의 가장 큰 신체적 특징은 신체로 혈액이 몰려서 열이 많이되고 하체는 혈액공급량이 적어서 허약해지고 차가워지는 현상 즉, 상열하한(上熱下寒: 上實下虛)입니다. 상체의 중상으로 울혈현상이 있습니다. 인체의 상체로 피가 몰리는 현상으로 상체의 혈관이 팽창되어 안면홍조,

눈의 충열, 심장이 두근거림, 고혈압, 숨이 차고, 귀 울림, 목 근육 경직, 두통, 어지러움, 기억력 감퇴가 오며, 머리에 열이 많아 땀이 많아집니다. 또한 상열증상으로 인해 얼굴 피부건조, 마른기침, 끈끈한 가래, 비염, 안구 건조감, 탈모, 시력저하 등이 올 수 있습니다.

하체에는 스트레스, 성질, 화를 낼 때마다 혈액과 영양분이 상체로 올라가니 하체는 자연히 혈액공급량이 적어져 대장, 방광, 자궁, 골반, 허리, 무릎 다리가 차가워지고 하체전반부에 기능저하가 나타납니다. 하복부냉감, 대장(변비, 설사), 방광(요실금, 만성방광염), 자궁(생리통, 냉대하, 자궁암, 자궁근종), 골반(만성골반염, 요통, 디스크), 무릎관절염, 다리가 저리고 시린 증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화병이 오래 지속되면 전신의 기운이 약해져 전신 무력감, 불면증, 우울증, 의욕저하 만성피로가 되고, 음식물을 먹어도 기운이 나지 않고, 먹어도 항상 속이 허하고 힘을

쓰지 못합니다. 결국 화병은 가능한 빠른 시간에 해소하는 것이 최상책이며 운동치료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좋습니다. 환자 각각에게 어떠한 운동을 하라고 정해 주기도 하지만 각자 여러가지 운동을 해보아서 가장 스트레스가 잘 풀리는 운동을 택하면 됩니다. 어떤 운동을 하고 나서 더 스트레스 받고 열을 더 받을때는 그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일 30분 이상 즐거운 생각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나고 즐거운 음악을 틀어놓고 따라 부르거나 몸을 흔들며 춤을 추는 것도 정신과 육체의 스트레스를 푸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체의 균형과 안정을 취해주는 한약 및 침을 사용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마음이 안정되게 하며, 상체열을 하강시키고 하체는 따뜻하게 하여 심장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치료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희한의원) 전 선형 원장

진료 과목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침구과

진료 안내
● 화병 / 스트레스 질환
- 불안, 초조, 가슴떨림 - 상열감, 안면홍조, 갱년기 장애
- 신경성 두통, 불면증, 우울증 - 수험생 집중력 저하

진료 시간
평 일 : 오전 9:30~12:30 / 오후 2:00~6:30
토요일 : 오후 4시까지 진료 공휴일/일요일 : 휴진

진료 문의
TEL 062)365-1541
광주 서구 화정동 추신회관 건너편 * 주차장 안내 * (건물 옆 패밀러 센터가)

화정동 주택은행추신회관

◀ 승정리 ▶ ▶ 돌고개 ▶

경희한의원 중앙병원